

데스크 시국



장필수 사회당 편집국장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서훈 취소 소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지난 9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권상과 함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행사 사흘 전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다. 난데없는 서훈 취소 배경에는 외교부가 있었다.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서훈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외교부는 서훈에 제동을 건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부에는 인권상 수여의 관계 부처도 아니고 상훈법 어디에도 사전에 외교부와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

일본 설득에 외교력 쏟는 게 우선

외교부의 처사에 대해 '일본 눈치 보기 외교'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지난 11일 정부를 대신해 '우리의 인권상'을 만들어 양 할머니에게 전달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지난해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았던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강제 동원 해법 외교 노력 성공하려면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양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인권상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13일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해온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광주를 방문해 한국 정부의 처사에 반발하면서 광주에서 추진 중인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100만 엔을 쾌척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난제를 조기 해결해 막힌 한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앞선다. 하지만 해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선 가해자를 설득하기보다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접근 자세부터가 틀렸다. 근로 정신대를 운영해 무고한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한 푼도 주지않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정부가 몸이 달아 피해자를 설득시키려니 해결될 리가 없다.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해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일본 측은 해법을 한국 측이 제시하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 정부가 별도 기금을 만들어 배상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이 30년간 줄기차게 요구하는 있는 것은 강제 노역을 시킨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진정 어린 사과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법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가해자가 사과하는 것이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수백 번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않는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가해자인 일본 측 설득에 외교 역량을 쏟는 것이다.

피해자를 설득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설득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면서 해법 마련에 나서는가 싶더니 중간에 외교부 명의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성 보여 피해자 불신 해소해야

피해자들은 정부가 여론 수렴을 이유로 자신들을 만나는 것도 명분 쌓기용이 아닌기라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며칠 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 방문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일부러 알린 뒤 어느 시점에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 문제를 풀어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 동원 해법을 위한 정부의 외교 노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피해자들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출처는 상관없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bungy@kwangju.co.kr

은편칼럼

모터 수선공 칠복 씨



고성혁 시인

갑자기 물이 끓겨 나가 보니 모터가 탈탈거렸다. 높은 곳에 집이 있어 모터 없이는 먹는 물을 끌어올 수 없었다. 탈탈거리다 내쳐 가래 끓는 소리를 내는 모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칠복 씨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아, 출장 수리 같은 것 안 해요. 칼 같은 거절이었다. 지난 번 찾아갔을 때 그에게 당한 일이 떠올랐다. 번두리 골목의 수리점을 어렵게 찾았건만 주인이 없었다. 잡동사니 철물이 가게 밖까지 쌓인 광경을 심란하게 바라보며 전화를 걸었더니 주인장이라고 나타난 양반, 몸 한 편이 불편했다. 아마 실망한 눈치를 보였을 것이다. 스피너 좀 돌려 보시오. 잠시 후 오른손으로 파이프 렌치를 잡은 그의 요구에 스피너를 쫓히는 순간 물이 팔팔 쏟아졌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의 나를 보면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장 난 모터를 단박에 수리했다 그를 꺾어어만 했다.

제가 모시러 가도 안 될까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지인에게 물어 한 시간이나 애를 쓴 끝에 어찌저찌 모터를 분리해 가져갔건만 모터 소리를 들은 칠복 씨가 모 쓰것소. 딱 잘라 말했다. 그럴 수는 없었다. 동네 상수도 공사가 끝난지 오래, 얼마 뒤면 간이상수

도가 없어져 모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었다. 새 걸 사느라 삼십 만원 넘는 돈을 쓸 수는 없었다. 얼굴을 찌푸리고 망연자실 서 있자 그런 내 물골을 보던 칠복 씨, 고물 모터들을 가리키며 그러만 비슷한 걸 찾아보시오, 라고 말했다. 기뻐뻐 물은 모터들을 무작정 들추었다. 그러기를 삼십 분, 결국 비슷한 걸 찾아내자 맘에 쏘는 내 얼굴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미쳤기 있었구만 이, 심상하게 중얼거린 칠복씨는 모터에 물을 채운 뒤 수압을 체크하고는 이젠 쓰것소, 라고 짧게 말했다.

고난은 그때부터였다. 고장 난 모터의 볼트를 풀기 시작한 칠복 씨는 계속 힘을 줘도 장어가 있는 오른손 때문에 헤드셋 스피너가 번번이 비탈리자 건너편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나를 안짱은 기색으로 넘겨다보더니 힘 있는 사람이 좀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명령이었다. 십 분 넘게 볼트와 씨름해 그걸 겨우 끝내자 칠복 씨, 교체할 중고 모터의 접합부를 들여다보고는 아이고, 소리를 질렀다. 볼트 머리를 두꺼운 플라스틱이 덮고 있었다. 볼트를 들여다보다 울화가 치밀어 말할 놈의 덮개를 망치로 내리쳤다. 그런 나를 보던 칠복 씨, 쫓쫓, 혀를 차고는 그러만 일자 드라이버를 대고 고놈을 찍어 보슈! 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을 깨라는 말이었다. 정신이 반쪽 들어 해머로 찍기 시작했다. 이마에 기름때가 번졌는지 바이스에서 작업하던 칠복 씨가 목장갑 하나를 던졌다. 나중 그는 맹렬 망치질을 계속하는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궁금했는지 나를 노려보더니 슬그머니 다가와 밀대 모자를 씌워줬다.

볼록 손님이 들어온 건 그때였다. 칠복 씨는 이윽고 나를 찾는 그 사람에게도 내게 했던 것처럼 찾아보슈, 라

며 부속 더미를 가리켰다. 함참 뒤 그 손님이 여기 있네! 라고는 얼마나고 묻자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삼천 원, 이라고 응언거렸다. 삼천 원? 그 양반 몇 만 원이라도 낼 준비가 돼 있는데? 하루 손님 한둘뿐인 이런 가게에서? 만 원은 받아야제라... 내 입에서 속엿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손님까지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는 데도 칠복 씨는 흥, 쪼꼬만 쇠덩이 하나에 될 만 원! 막 무가내였다. 칠복 씨는 만 원을 받고 끝내 칠천 원을 내줬다.

작업하는 동안 칠복 씨의 코웃음이 자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깨달았다. 문제는 나왔다. 세상이 도무지 보기 싫어 뉴스도, 사람과의 관계도 끊은 채 산골 백수가 되어 있었다. 안제부터가 담당하기는커녕 사람들과 영기는 것마저 두려워하고 있었다. 패배주의야말로 굴종의 씨앗이거늘, 오랜 실랑이 끝에 일이 끝나자 수고했소!라며 내 어깨를 친 칠복 씨는 모터 교체 비용 중 이만 원을 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아저씨 탐 값이오.

아, 누가 좋은 시는 비시적(非詩詠)인 혹은 반시적(反詩詠)인 일상사를 급습해 때때로 진실과 아름다움을 구조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칠복 씨는 이미 최고의 시인이었다. 이 시간에도 직정(直情)의 시를 쓰고 있을 능주의 칠복 씨. 당당함으로부터 좋은 세상이 비롯되지 않는가. 정의로운 세상도 마찬가지. 오랜만에 아침 신문을 읽다 칠복 씨가 정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안 될 게 무언가. 그가 파이프 렌치를 들고 이 겁박과 특혜와 혐오의 세상을 바투 비르다면 그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기고

우리 다 함께 '20% 절수'에 동참하자



조귀임 전 광주백운초등학교 교사

물은 자원으로서는 아주 큰 가치를 지닌다. 우리 신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끊임없이 몸을 순환하며 노폐물을 걸러주거나,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면 우리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만다. 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음식을 만들고, 세탁·설거지·샤워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음식 없이는 2주를 견디나, 물 없이는 사흘도 견디지 못한다.

광주·전남 지역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당국은 내년 3월 말이면 동북호가 고갈될 것으로 보고 주암댐 물이라도 끌어다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노후 수도관 교체, 지하수 개발, 영산강 물 끌어 쓰기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민 1

인의 하루 물 사용량은 337 ℓ이고, 1일 사용한 50만 톤 중 68%가 가정에서 이용된다. 이렇듯 가정에서 물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물을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또 써서 물 사용량을 줄이고 제한 급수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일보(2022.1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절수 대책에 실패하면 내년 2월부터 제한 급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동북댐 저수율이 29.04%로 떨어진다. 비 소식도 없어 광주시민들의 물 절약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산하 기관을 비롯해 수영장, 목욕탕, 세차장 등 업소를 대상으로 절수를 독려하는 등 동북댐의 고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2월은 김장철이라 집집마다 김장하느라 많은 물을 사용한다. 공기마저 건조해 산이나 가정집에도 불이 자주 나는 탓에 물을 낭비하기 쉽다. 150만 광주시민의 젓줄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29%대로,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지난 8월 말 이후 줄곧 가뭄 대응 '심각' 단계이다. 광주 식수의 60%를 책임지는 동북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뭄이 지속되면 내년 3월쯤에는 취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물 사용량을 20% 줄여달라는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을 위해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빨랫감과 설거지감을 한번에 모아서 하기, 세탁기의 수위를 빨랫감의 양에 맞게 조절하기, 마지막 행굼 물은 재이용하기, 수도 밸브 수압 저감, 배관다청소 및 세차 시 호스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또한 수도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물 사용량과 누수 점검하기, 화장실 양변기에 페트병 넣기, 쌀 씻은 물 받아 재사용하기, 샤워 시간 반으로 줄이기, 설거지통과 양치컵 사용하기 등의 방법도 있다.

현재 광주 지역 물 사용 절감율은 8%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많은 비를 기대하기 어렵고 내년 6월까지 갈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절수 외에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물 사용량이 크게 줄지 않으면 향후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다.

요즘은 집에서 물을 사용하려 할 경우 적잖이 신경이 쓰인다. 필자도 물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에 앞서 우리 모두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물을 평평 쓰던 지난날을 되돌아 보며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물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함부로 평평 쓰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지난날의 물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늘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닐런지.

社說

'5·18 역사 왜곡'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철회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선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단체들은 국가 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설립된 기관의 위원장으로는 부적격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제 취임한 김 위원장은 2020년 10월 한국하이테크사이버터 정책 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이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논문에서 당시 여권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광주 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옳바름이고,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와도 정면 배치된다. 북한군 개입설은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국가·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허위로 판명됐다. 헬기 사격 역시 2018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 위원회가 "5·18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도 2020년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립과학사건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4·3 사건을 왜곡하고 '과거사위원회는 존립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극우 보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릇된 역사 인식이 이렇듯 인신에게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등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의 수장을 맡긴 것은 어불성설이다. 5월 단체들이 "역사적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공영 주차장 조성 '하세월'... 행정력 집중해야

광주시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잇따라 공영 주차장 조성에 나섰다으나 차질을 빚고 있다. 자재값 상승과 자체 수급 불안정, 예산 부족이 겹쳐 착공과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은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조성 중인 송정 주차타워(총주차면 수 1580면)를 당초 10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다가 12월로 한 차례 미뤘는데 또다시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 측은 "잇단 태풍과 호우로 작업이 수시로 중단된 데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 서구와 남구의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도 지체되고 있다. 서구는 양동 공영주차장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주차장 규모도 처음 계획했던 170면(지상 4층)에서

125면(지상 3층)으로 줄었다. 국·비·비·구비를 합쳐 총 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철근 등 자재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13억 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남구 또한 봉선시장(106면)과 무등시장(120면)에 공영 주차장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상승한 데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무단 점거 중인 세입자와 명도 소송 등으로 인해 추진이 더딘 상태이다.

광주 도심에선 시민 누구나 주차난을 실감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공영 주차장 조성이 필수적이다. 통행량이 많은 송정역과 전동시장 등지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시민들은 보다 나은 도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공기 지연 등 난관이 많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공영 주차장 조성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바다에서 길을 잃어 일본으로 흘러 들 어간 '뽕', 중국의 남쪽 항구에 도달한 '서양뽕'이 우리 땅에서는 '뽕'으로 정착한다. 전쟁과 땅이 만나 단팥뽕이 만들어지고, 오븐이 아닌 찜통을 만나 찜뽕이 만들어진다."

한성우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지난 2016년 펴낸 '우리 음식의 언어'에서 "뽕을 비롯한 모든 음식은 그렇게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하면서 쉬이고 또 발전한다. 그것이 음식이다"며 뽕의 기나긴 여정을 설명한다.

붕어뽕·꿀뽕은 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구마 크립치즈' 등 새롭

11월 '근로기준법' 책자를 불태우며 반성한 전태일 열사는 점심을 거르고 일하는 나이 어린 여공들을 위해 버스비를 털어 꿀뽕을 사주었다. 정작 자신은 청계천에서 도봉산 아래 집까지 걸어가다 툼툼에 걸려 파출소에서 자기도 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이었던 추억의 붕어뽕이 변신하고 있다. 요즘 총장조 1가를 지니다 보면 붕어뽕 가게 앞에 펼쳐진 장사진을 보게 된다. 파는 사람도, 줄지어 사는 사람도 모두 2030 청년세대이다. 예

전처럼 단팥이 든 붕어뽕이 아니라 '팍팍팍 치즈'와 '피자 붕어뽕' '고정통 뽕'은 아니다. 누가, 다. 가격도 개당 2000원이다.

새 메뉴로 차별화한 붕어뽕은 '붕세권'이라는 용어나 붕어뽕 노점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에서 보듯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중·노년에게 추억의 거리 간식인 붕어뽕이 신세대들에게는 '뉴트로'(New+Retro: 新復古) 음식인 셈이다. 젊은 세대 손에서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잘 구워진 새로운 붕어뽕 한 마리가 한겨울을 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든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